‘금강신심’으로 성불의 길 닦자

범어사 ‘금강경 1250제자 수기대법회’ 입재… 70일의 구법여행 떠나

선찰대본산 범어사(주지 정여)는 5월 26일 오전 10시 설법전에서 ‘<금강경> 1250제자 수기대법회’의 입재법회를 갖고, 70일간의 구법여행을 시작했다.

이번 법회는 부처님 당시 기원정사에서 1250명의 제자가 법문을 들었던 것을 재현해, 5월 26일부터 7월 1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설법전에서 수기대법회를 봉행한다.

수기(授記)란 모두가 존귀하고 값진 존재로 본래 부처임을 눈뜨게 하는 것을 말한다. ‘미래에 너는 성불해 부처가 될 것이다’라는 의미로, 보통 이마를 만져주거나 광명에 둘러싸이는 등의 기분 좋은 꿈을 통해 수기를 받는다고 한다. <법화경>에는 일찍이 석가모니부처님께서도 연등부처님께 수기를 받고 훗날 부처님이 됐다고 전한다.

이러한 기록에서 유래한 이번 1250제자 <금강경> 수기대법회 입재법문은 무비 스님(前 조계종 교육원장)이 수기의 뜻과 <금강경>의 대의, 수기대법회에 임하는 올바른 자세 등을 설했다.



5월 26일 부산 범어사 설법전에서 70일간 지속될 ‘<금강경> 1250제자 수기대법회’ 입재법회가 봉행됐다.



무비 스님이 첫날 <금강경>의 대의와 수기의 뜻 등을 설명했다.

이후 6월 2일 각성 스님(화엄정사 주지), 9일 통광 스님(칠불암 회주), 16일 수진 스님(해인정사 주지), 23일 혜남 스님(통도사 율주), 30일 홍선 스님(前 중앙승가대학원 초대 대학원장), 7월 7일 현봉 스님(前 송광사 주지), 14일 묘허 스님(단양 방곡사 회주), 21일 지환 스님(동화사 기본선원장), 28일 정여 스님(범어사 주지) 등의 순으로 법석에 올라 <금강경>을 설하게 된다.

주지 정여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 당시 기원정사에 모여 법회를 듣던 1250명의 제자들이 이 자리에 다시 모인 것이 아닐까 생각될 만큼 감격스러운 법석이 열려 기쁘다”며 “진지한 자세로 <금강경>을 독경하고, 매회 법사스님의 법문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경청한다면 이번 수기대법회가 끝날 즈음 이 자리에 모인 1250명 모두가 부처님께 수기를 받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무비 스님은 입재법회의 입재법문에서 “<금강경>은 한국불교의 가장 중요한 교과서로 수많은 경전 중 제1의 교과서이기에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단 한권의 경전이자 영원불변의 진리”라며 “한여름 뜨거운 햇볕과 폭우로 초목이 성큼 자라듯 법회를 마치면 보다 성숙하고 발전한 참불자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이번 법회에 참석한 1250명의 이름은 동판에 새겨져 범어사에 영구보관 되며, 범어사는 앞으로 10년간 1250제자 <금강경> 수기대법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지원 기자

‘오계수호신장번’ 최초 공개

통도사 성보박물관 신관 개관 10주년 기념전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정우)는 성보박물관 신관 개관 10주년을 맞아 일본 가가미신사의 ‘고려 수월관음도’와 함께 통도사의 사격과 역사를 상징하는 통도사 계단 및 도량장엄 의식구가 모습을 드러낸다.

먼저 ‘고려 수월관음도(사진)’는 고려시대의 불화 가운데서도 가장 웅장하고 뛰어나 한국불교회화의 백미로 평가받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일본 사가현 현립박물관에 기탁보관 중이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불보종찰 통도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이번 특별전은 일반 시민과 불자들에게 우리 문화재의 우수성과 귀중함을 일깨우고, 나아가 국외에 반출된 우리 문화재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또한 아직 한번도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통도사의 도량 장엄의식 불화인 ‘오계수호신장번’과 ‘십이신장번’ 등이 최초로 공개된다.

일본 가가미신사 ‘고려 수월관음도’ 특별전은 오는 6월 7일까지이며, ‘통도사 금강계단과 도량장엄 의식구’ 특별전은 8월 30일까지 이어진다.

박지원 기자

창포물에 머리감고 악귀 쫓자

화명복지관 단오창포다례축제 열어

음력 5월 5일 단오를 일주일여 앞두고 부산 화명3동 코오롱2차아파트 인근 공원에 많은 주민들이 몰려 창포물에 머리를 감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5월 23일 열린 제2회 단오창포다례축제.

화명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영란)은 5월 23일 오후 2시 제2회 단오창포다례축제를 개최했다. 복지관은 세숫대야에 창포물을 담아 머리를 감으며 악귀를 쫓기 위해 예로부터 내려오던 단옷날의 풍습을 직접 재현했다.

1부 본행사는 소원성취 종이달기 및 체험마당을 시작으로 기관장 인사 및 축사, 다례 시연, 창포물에 머리감기, 단오비음, 단오잠(창포비녀 꽂기), 단오선(단오부채 나누기), 제기 · 장명루 · 연 만들기, 떡메치기, 윷놀이, 전통 투호놀이, 널뛰기, 씨름 등 세시풍습의 재연 및 다채로운 체험행사, 흥겨운 놀이마당이 이어졌다. 이어 2부 축하공연은 우리춤 화선무 공연, 태권도 격파 시범, 경기민요 등의 무대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김영란 관장은 “이번 축제를 통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을 사랑하고, 전통문화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일깨워주고, 지역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됐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지원 기자

우리지역 부루나존자

부산 교수불자회장 차득근 교수

부산교수불자회·대불련 재도약 ‘목표’

“나는 여러모로 부족한 사람인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회장이란 막중한 소임을 맡게 돼 송구스럽고 어깨가 무겁지만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부산 교수불자회 제7대 회장으로 동의대학교 전기공학과 차득근(60 · 법명 무애 · 사진) 교수가 선출됐다.



5월 29일 오후 6시 코모도호텔 2층 해마루에서 열린 제7대 회장이 · 취임식에서 차득근 교수는 임기 내 선결과제로 각 대학별 교수불자회 간 교류 활성화를 손꼽았다. 이를 위해 정기 모임과 신행활동, 학술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각 대학 교수불자회 임원진 및 전회원 간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에 연 1회씩 열리던 집중수련법회를 연 2회로 늘려, 정례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침체된 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의 재도약을 목표로 세웠다.

차 교수는 “요즘 학생들은 ‘불교 동아리’라고 하면 재미없어 하고 창피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잘못된 편견들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며 대학생들에게 포교하기 위해서는 젊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 불교도 새롭게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년간 꾸준히 대불련 지도교수를 맡아온 차득근 교수의 포교 열정은 남다르다. 대불련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유례없는 졸업시험을 실시해, 이를 통과한 학생들에게는 특별히 수료증을 전달한다. 물론 정기법회 출석률은 기본이다.

“기말고사를 쳐서 그간의 학업을 평가하듯이 ‘오온은?’ ‘색즉시공의 뜻은?’ ‘108번뇌란?’ 등의 문제를 학생들에게 내는데, 대부분 통과해 수료증을 받으니 기특하죠.”

뿐만 아니라 수업 틈틈이 학생들에게 <명심보감> <논어> <소학> 등 공자의 훌륭한 가르침을 전하고, 부처님오신날 즈음에는 ‘석가모니는 누구인가?’ ‘108번뇌란?’ <반야심경> 등의 주제로 특강을 하기도 한다.

“한 강의실 안에는 다양한 종교를 가진 학생들이 함께 있지만 이런 짧은 특강을 통해 학생들에게 우리 문화의 근간인 불교를 바르게 이해시켜주고 싶다”고 설명했다.

차득근 교수가 새학기 신입생들에게 잊지 않고 전하는 부처님 가르침은 바로 ‘본립이도생 일체유심조(本立而道生 一切唯心造)’. 마음이 바로서야 길이 열리고,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렸으니 앞으로 열심히 정진해 큰사람이 되라는 깊은 뜻이 담겨있다.

차 교수는 부산 근교의 조용한 시골마을에서 집안에 작은 참선공간을 마련하고, 매일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직접 목탁을 치고 염불하며 예불을 드리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가야산 골짜기 성주의 작은 시골마을에서 나고 자라, 꿈을 키울 수 있었던 희망과 용기의 원천은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어머니의 기도 공덕이라고 말한다.

“선대부터 불교집안이었고, 절에 행사가 있으면 어머니께서 늘 찾아가서 일손도 돕고 자식들에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면 어김없이 기도를 드리러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자랐어요. 그런 어머니의 불공 공덕으로 자랐으니 이제 제자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일로 모두 회향해야지요.” 박지원 기자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2009년 장사성공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목도 않좋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풍수학적으로 보면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다. 그리고 항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건물 한지붕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사업이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어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며,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헛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귀가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생활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장사 성공을 기원하는영험의 법구로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광사에서 장사흥왕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치고 시판하는 금강삼고저는 가로8cm 세로3.5cm에 벽에 걸게 고리와 수술이 달려있어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니로 제작해 품위도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린다. 보시가격:85,000원 (신용카드 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식당, 가든, 의류점, 보석상, 부동산중개소, 이미용실,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학원,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권방, 각종스포츠센타,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곡상,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자동차용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앞면 뒷면

호신불규격직경3.5cm,세로4.5cm



▶자동차사고 예방 점안식과 축원불공마쳐!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염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염주는 부처님께 예불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중생들이 사는동안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비방의 법구들이 있다. 그중에서 달리는 자동차에 꼭 맞는 법구가 반가사유상 호신불이다. 우리나라 호신불의 역사는 삼국시대 신라부터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돌아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했으며 호신불을 몸에 지니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전해진다. 한치 앞도 모르는 험한세상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편한날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인 반가사유상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운전하는 남편께, 존경하는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이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신라 화랑장수와 귀족들이 수호신으로 사용했던 호신불을 재현한, 반가사유상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과 백연화를 넣었다. 생명보호와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동호신불을 자동차 운전석 위 룸밀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신차출고시 사고예방과 생명보호의 선물

가격45,000원
신청전화: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화재의 염주

천연백수정108 염주

승리의 염주, 행운의 염주, 불멸의 염주





특별선물 : 단주

인연의 귀인을 만나 성공하는 인연염주!
건강 장수와 행운이 함께하는 평생염주!

영원히 살아 숨쉬는 천연백수정 108 법륜 염주가 수입되어 시판하고 있어 화제다. 천연백수정은 미륵 부처님 이마에 점안을 하는 보석으로 어둠과 고통속에 있는 중생들을 구제하고 밝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영원히 점안해 있는 것이다.

인도에서는 천연백수정을 불멸의 부처님 보석으로 간직하고만 있어도 사업이 망하지 않으며, 병든 중생은 건강장수하고, 인연의 짝과 인연의 귀인을 만나 근심 걱정이 해결되고 그 인연의 만남으로 원하는 계획이 성공되는 행운의 보석이라 해. 인도 부유층 사람들이 천연백수정을 염주로 만들어 예불법구로 사용하고 있다.

고대 인도 부유층 인사들과 아라비아 거상들의 전통모자에는 행운을 안겨주는 불멸의 천연백수정을 부착하고 다니는 것을 영화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것이 인연법이다.

불자라면 누구나 염주는 필수품 !

한사람의 인연의 귀인을 만남으로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볼수 있다. 환자는 인연의 의사를 만나면 고통이 살아지고, 사업가는 한사람의 인연으로 사업이 성공되고, 원대한 불사도 한사람의 인연으로 불사가 완성 되는것을 볼수있다.

불멸의 평생염주인 천연백수정 108염주는 사용하실분의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100일 축원불공을 올려드리며108염주외 시판기념으로 항상 가지고 다니는 천연백수정 단주를 특별선물로 드립니다.

가격:95,000원 (카드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